

목포시 긴축재정 성과...부채 770억 감축

민선 6기 2년 6개월만에 3010억→2240억으로 줄여 매년 감채 기금 조성 상황...내년부터 재정운용 숨통

민선 6기 출범 이후 2년 6개월 동안 부채 상환을 위해 허리띠를 졸라매는 등 목포시의 긴축재정이 빛을 발하고 있다.

목포시는 "2014년 6월말 기준 3010억원에 달하던 통합 부채가 2016년 말 기준 2240억원으로 770억원이 줄었다"고 20일 밝혔다.

목포시는 차입금으로 367억원을 상환했으며, BTL 국비 부담분 및 육양지구 택지개발 매각 수수료 302억원도 갚았다. 또 BTL 임대료 시비 부담분 및 기타 부문에서 101억원을 감소하는 성과를 냈다.

차입금의 세부적인 상황내역은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개설 96억원 ▲목포국제축구센터 25억원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 41억원(이상 일반회계) ▲육양지구 택지개발 135억원 ▲세라믹 산단 조성 70억원(이상 특별회계) 등 총 367억원이다.

이에 따라 목포시가 은행에서 빌린 돈, 즉 순수 채무(총 868억원·2014년 6월 기준)는 경찰서~버스터미널 도로개설(총 280억원) 184억원, 목포 국제축구센터(총 63억원) 38억원, 교부세 감액분 지방채(총 202억원)는 161억원, 육양지구 택지개발(총 225억원)은 90억원, 세라믹 산단 조성

(총 98억원)은 28억원 등 5개 사업에 501억원만 남게 됐다.

특히 목포시는 기존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 이행 현황 대비 육양지구 택지개발 부문에서 36억원, 세라믹 산단 조성 부문 19억2000만원 등 55억2000만원을 조기 상환하는 성과를 거뒀다.

목포시는 또 부채 상환을 위해 매년 10억원 규모의 감채 기금을 조성, 기금 이자율이 낮아 부채를 갚는 것이 더 유리하다는 판단에 따라 이 기금을 부채 상환에 조기 투입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

이와 함께 목포시는 민선 6기 출범 직후 부채를 줄이기 위해 가장 먼저 관사를 매각(2억5000만원)하고 2년 동안 각 실과 경상비·출장비·각종 수당 등 공무원들의 공통 분담을 통해 5억5000만원을 절약해 이를 채무를 갚는 데 사용했다.

목포시는 특히 2015년~2016년 2년 동안 민간경상보조금 매년 10% 감축이라는 특단의 조치로, 자투리 예산까지 채무 상환에 사용한 점도 시 재정 위기 극복에 한 몫을 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 같은 노력으로 목포시는 올해(2017년 회계기준)부터 '재정건전성 관리 계획'



박홍률 시장이 지난 3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된 '2017 시정보고회 및 시민과의 대화'에서 770억 부채 상환 등 2016년 시정 성과와 함께 올해 주요 사업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의무공제 대상 지자체에서 제외된다. 이는 목포시의 재정건전성이 위험단계에 벗어났다는 의미로, 내년부터 재정 운용에 숨통이 트일 전망이다.

박홍률 목포시장은 "민선 6기 출범 당시 3000억원에 달하는 통합 부채를 한 톨이라도 더 갚기 위해 지난 2년 6개월 동안 허리띠를 졸라매고 부단하게 노력해온 덕분에 770억원을 갚는 성과를 거두게 됐다"면서 "지난 2년 동안 교통 부문에 동향해 준 시 공직자들과 관련·시민사회단체

등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시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목포시의 통합 부채(2016년 말 기준)는 목포시가 부담하지 않는 부채 ▲BTL 임대료 국비 부담분 939억원 ▲육양지구 택지 매각금 수수료 101억원 등 1040억원이며, 목포시 부담 부채는 ▲차입금 501억원 ▲BTL 임대료 시비 부담 분 446억원 ▲복식부기 회계상 부채(퇴직금 총 당금 등) 253억원 등 1200억원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 개정...범위·대상 확대

목포시가 목포항 활성화를 위해 기존의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유치 지원 조례'를 개정 '목포항 화물유치 지원 조례'로 명칭을 변경하고 지원 범위와 대상을 확대했다.

목포시는 20일 "목포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고, 선사지원금 수령 후 항로 중단 사례가 종종 발생해 지원금 지급 시기와 반환사유 등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고 개정 이유를 밝혔다.

이 조례에 따르면 기존 컨테이너 화물에만 지원되던 인센티브가 자동차

환적 화물과 순중 컨테이너 화물까지 범위와 대상이 확대된다.

또 선사의 하역비 및 해상운임, 수출입 비용 일부 지원금은 목포항 컨테이너 화물 연간 처리물량 5만TEU에 도달한 연도까지 지원 기간이 대폭 연장됐다.

이와 함께 정기 컨테이너 선사의 손실액 및 운영비 일부 지원기간도 항로 개설일로부터 1년이 지난 이후 지급하되 3년으로 나누어 매년 지급하고 항로 중단 시 지급이 중단된다.

/목포=임영춘기자 lyc@kwangju.co.kr

목포시 SNS 시정 홍보 강화...전담팀 신설 운영

목포시가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 잡은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 이하 SNS)를 통한 시정홍보를 강화한다.

목포시는 지난 1월 중순 상반기 정기 인사에서 공보과 내에 'SNS 시정홍보 전담팀'을 신설하고 직원 2명(6급 1명, 8급 1명)을 배치했다.

전담 팀 발족을 계기로 부서별 SNS 소통관을 재정비하고 전문가 초빙교육, SNS활용 매뉴얼을 제작·배부하는 등 전 직원의 SNS에 대한 관심도를 제고시켜 시정홍보를 강화해나간다는

게 목포시의 전략이다.

이를 위해 목포시는 이달 중으로 각 부서별 SNS 소통 홍보관 재지정에 나선다. 그동안 각 부서별 1명씩 67명으로 운영해오던 소통 홍보관도 각 부서별 2명씩 총 134명으로 대폭 늘린다.

또 목포시는 오는 3월 중 SNS 전문가를 초빙해 교육을 실시하고 SNS 시정홍보기법 매뉴얼도 제작해 배부할 계획이다. 이 매뉴얼에는 SNS 주요기능 설명과 함께 시정홍보 활용 방안(예시), 공식전거버넌스 관련 정보 등이 수록된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10년째 이어온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22~24일 목상고서 나눔행사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행사가 10년째 이어져 신학기를 앞둔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 행사는 30여만원에 이르는 교복 구매 부담을 줄이고, 선배가 기증한 교복을 후배가 물려 입을으로써 자원을 재활용하기 위해 지난 2008년부터 시작됐다. 올해도 22일부터 24일까지 3일 동안 목상고 체육관에서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나눔 행사가 개최된다.

이번 행사를 위해 목포시 관내 34개 중·고교 학생들이 참여해 동복, 하복, 체육복 등 6000여점이 수집됐다. 수집된 교복은 한국세탁업중앙회 전남지부와 여성단체 등 자원봉사자의 재능봉사를 통해 세탁, 수선, 드라이클리닝 등을 거쳤다. 단정된 교복은 행사기간 동안 저소득층 가정과 사회복지시설의 중·고등학생에게 돌아가고, 잔여교복은 해당학교에 직접 전달된다.

김영숙 목포시 사회복지과장은 20일 "경제 불황으로 새 교복을 구입하는 것이 큰 부담이 되고 있는데 이번 행사를 통해 어려운 가계경제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목포=임영춘기자 lyc@



목포시는 매년 2월 '사랑의 교복 물려주기' 행사를 개최해 신학기 앞둔 저소득층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목포시 제공>

목포시 노후 공동주택 보수 지원 올해 2억 투입

목포시가 올해 순수 시비 2억 원을 들여 노후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사업을 펼친다.

19일 목포시에 따르면 관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178개 단지를 대상으로, 단지 내 주도로와 인도, 어린이 놀이터, 경로당(전액 지원), 기타 시설(50% 이내) 등 공용시설물 유지 보수

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한다.

이에 따른 예산은 총 1억 원이 책정됐고 이와 별도로 공동주택 보안등 전기료도 1억 원이 지원된다. 목포시는 이달부터 3월 까지 전수조사를 실시한 뒤 오는 4월 공동주택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원 대상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목포=고규석기자 yousou@

새얼굴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정행정 펼칠 것"

박삼재 목포교도소장



"엄정한 수용질서 확립과 법에 근거한 업무처리로, 청렴하고 사고 없는 교도소를 만드는 데 주력하겠습니다"

최근 취임한 박삼재(48·사진) 제49대 목포교도소장은 20일 "내실있는 교정교화로 목포시민에게 신뢰받는 교정 행정을 구현하는 데 집중

하겠다"고 밝혔다. 신임 박소장은 화순출신으로 광주지방교정청 보안과장, 광주교도소 부소장 등을 지냈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2층 상가매매 (CGV 광주용봉점)

카페(인테리어완료), 병원, 미용실, 학원, 당구장, 탁구장, 체육관 등

- 전용 289㎡ (약87평) 분양면적 약150평
- 현재 카페 인테리어(160㎡) 및 공실(129㎡)
- 매매 7억원(근저당 5억원), 실투자 2억원

락 볼링장 매매 (CGV 광주용봉점)

최신인테리어 락 볼링장, 현성업종, 직영하실 분 유망사업

- 볼링장 16레인, 시설비품 일체포함
- 매 26억원 (근저당 20억), 실투자 6억원

문의 010-3647-4747

상기물건은 전속중개 물건으로서 급매가 입니다

www.솔향기맑은터.com

NAVER 솔향기맑은터 검색

전남 나주시 남평읍 풍림리 171(풍림죽림길 86)
대표전화 (061)336-0770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참숯구이 돼지갈비 전문점
www.솔향기맑은터.com
061)336-3939

참숯가마
24시간 OPEN!!

맛의향연
솔향기 맑은터는 풍광을 자랑하는 그리고 목신도사에서 10분 거리에 있습니다

참숯구이 돼지갈비 13,000원
(눈,비오는날 9,900원)

- 다량의 원적외선을 방출하는 불베는날 화, 목, 토, 일 불베는 날이 아니어도 화로방에서 원적외선 샤워
- 사전예약시 컨퍼런스룸, 족구장, 10인승, 20인승 무료이용
- 멸균작용으로 시 및 바이러스 퇴치에 도움을 주는 목초액 연가공급 1톤 30만원 (양돈, 양계, 한우, 하우스농가대상)
- 참숯가마 고객님이 식당 이용시 10% 할인

- 단체모임을 위한 8인실, 16인실, 32인실, 56인실 구비
- 솔향기정식(예약에 한함), 돼지갈비 전문점
- 돼지갈비를 드시면 참숯가마 찜질방 20%할인
- 주말 및 단체모임은 사전예약을 해주시면 정성껏 모시겠습니다.

각종모임(상견례, 가족모임, 기업체모임)/컨퍼런스룸/참숯가마 찜질방/노래방 & 동전노래방